

자아의 통일성은 심리적 속임수가 만든 결과물

| 줄리안 바지니 | 강혜정 옮김 |

단일한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통일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자아라는 허상을 심리학적으로 잘 밝혀줍니다(편집자 주).



존 로크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자기를 자기로 간주할 줄 아는 사유하는 지적 존재,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항상 동일한, 사유하는 존재.” 로크는 이것이 뻔한 명제라고 생각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이다. 어조가 너무 강했는지 모르지만, 로크는 사람들 대부분이 꼼꼼히 생각해본 다음에 기꺼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실, 로크의 주장은 전적으로 자명하진 않더라도,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 대다수가 로크의 정의를 들곤 시시하다는 듯 어개를 으쓱해 보인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로크의 생각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체 함의를 이해하고 나면 뻔하고 시시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로크가 비물질적인 영혼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보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비물질적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로크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는 그의 관점에서 영혼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본 다음, 자기 내부에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다고 가정하게끔 하자. 비물질적인 영혼은 그의 내면에서 생각을 하고, 육체의 부단한 변화 속에서도 그를 동일인으로 유지시켜주는 존재다. 그리고 그가 ‘자기’라고 부르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에게 또한 그의 영혼이 트로이전쟁 당시 네스토르Nestor나 테르시테스Thersites 안에 있었던 동일한 영혼이라고 가정하게끔 하자. (우리가 아는 한, 영혼은 본질상 어떤 물질의 일부분과도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이런 가정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의

영혼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다른 사람의 영혼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는 네스토르든 테르시테스든 그들의 어떤 행동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가 자기를 둘 중 어느 누구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가 둘 중 누군가의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들의 행동이 과거 언젠가 존재했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라고, 즉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ook 2, chapter 27, para. 13.)

로크의 질문들은 어디까지나 수사일 뿐이다. 로크는 계속해서 말한다. “사실 그는 둘 중 누구와도 연관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영혼을 가지는 것과 과거 누군가의 영혼이었던 영혼을 가지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겠다고 해서 그가 될 수 없듯,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갖는다고 해도 그와 동일인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영혼이 의식까지 더불어 가지고 있다면, 오직 그럴 때에만,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로크의 논지는 워낙 자명해서 논증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비물질적인 부분의 지속 자체가 사람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드러내는 데는 별도의 논증이나 추론이 필요하지 않다. 옳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옳은 질문은 옳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로크가 옳다는 사실을 보고 아는 것이지, 추론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의 정의에 따라, 인간이 아닌 사람non-human person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견해의 급진성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기를 자기로 간주할 줄 아는 사유하는

지적 존재,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항상 동일한, 사유하는 존재”이기만 하다면, 동물이나 외계인도 ‘사람 a person’이다.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인간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생명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일부의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침팬지와 보노보(피그미침팬지라고도 불리는 포유류,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웁긴이)가 그렇다. 지금까지 인간만이 누려온 배타적인 일부 인권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보노보에게도 부여하자는 취지의 유인원프로젝트Great Ape Project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이런 관점에 동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윤리학자 토머스 화이트Thomas I. White는 사람personhood이라는 지위를 돌고래에게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는 이런 주장이 극단적이라고 보지만, 이 주장 이면의 원칙이 틀렸기 때문은 분명 아니다. 여기서 원칙은 ‘사람’은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라 기능적 범주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종species에 상관없이 어떤 생물이든, 심지어 기계라도 사람처럼 의식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간과 비슷한 다른 종을 등장인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우호적인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들을 동물이 아닌, 사람(인격체)으로 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앵무새가 사람처럼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단순한 새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철학자 데릭 파핏에 따르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동일한 사람을 만드는 핵심은 심리적 연결과 지속성이다. 어떤 사람이 급격하게 육체가 변한다 해도 동일인으로 남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질병이나 두뇌 손상으로 지속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알던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의문을

현대 철학자 데릭 파핏에 따르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동일한 사람을 만드는 핵심은
심리적 연결과 지속성이다

품는 것이다. 직관상으로 기억이 개인 정체성에서 너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억만으로 개인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기억이 심리적 연결과 지속성의 주된 원천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원천은 아니기 때문이다. 뇌가 정체성에서 그렇게나 중요하지만, 이것 역시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대로 기능하는 뇌는 우리가 심리적 통일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단순히 뇌의 존속이 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가진 육체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아의 속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육체와 역할 모두 심리적인 자아의식 형성에 기여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를 결정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 모든 것이 뻔한 소리로 들린다면, 어쩌면 보다 근본적인 어떤 함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구조물이라는 사실이리라. 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연결과 지속성은 (지속성을 지닌) 자아의 핵심, 진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는 진주 관점이 아니라 ‘묶음이론bundle theory’이라는 것을 토대로 한다. ‘묶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 David Hume이다. 그것도 딱 한 번. 그 당시 철학자 토머스 리드는 이런 관점의 탄생을 흄의 덕으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정신이라 지칭하는 것은 생각, 열정, 감정들의 묶음일 뿐이다.” 냉소

에서 시작된 많은 표현들이 그렇듯 묶음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고착되었다. 묶음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이 책을 치우고, 우리 내면을 관찰해보도록 하자. 온갖 생각과 기억 등을 품은 당신 자신the you을 찾아보도록 하자.

찾아냈는가? 그렇다면 묶음이론가의 대부 격인 데이비드 흠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흠은 일찍이 자아 찾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나로서는,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 속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 때면, 늘 이런저런 지각, 이를테면 열기나 냉기, 빛과 그림자, 사랑과 증오, 고통과 쾌락, 색깔 혹은 소리 등등과 마주친다. 나는 이런 특정 지각과 구분되는, 오롯한 나 자신을 결코 포착하지 못한다.” 우리의 정신은 그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지각 또는 생각의 연속일 뿐이다. 당신이라는 사람the person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소유한 무엇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이런 생각들의 모음collection일 뿐이다. “(나 자신은) 여러 지각들의 묶음 또는 모음에 불과하다. 이런 지각들은 상상도 못 할 만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영원한 흐름과 움직임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원제)이기도 한 ‘자아의 속임수the Ego Trick’의 핵심이다. 실제로는 뒤죽박죽되어 혼란스럽게 이어지는 단편적인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중앙통제소 따위는 없는 뇌에서, 통합된 하나라는 강력한 의식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아의 속임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속임수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술사의 속임수가 아니라 정비공의 속임수 혹은 묘책과 비슷하다. 마술사의 목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반면 정비공, 기술자, 과학자들이 쓰는 ‘속임수’는 일반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당장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지름길 혹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연결과 지속성은
자아의 핵심, 진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진주 관점이 아니라
'묶음이론(bundle theory)'이라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은 임시방편을 찾아내는 것이다.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당장 부품을 구하기 힘든 경우, 정비공은 어떻게든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들 나름의 묘수, 즉 '속임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자아의 속임수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자아를 이루는 단일 물은 없지만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이 있는 양 기능해야 한다. 마침 정신은 뇌와 육체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게 해주는 온갖 비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임수가 성공함으로써 자아는 정말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통일성에 압도되어 기저에 단일한 무엇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자아는 하나의 실체 혹은 사물이 아니며, 여러 가지가 결합된 일종의 모음이 하는 기능이다.

나는 이번 장에서 묶음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옳은가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아직도 이런 견해가 낯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묶음과 비슷한지 떠올려보는 것도 좋으리라. 원자도 불변의 고체가 아니라 전자, 중성자, 양성자들의 묶음이다. 식물도 복잡한 시스템이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차는 부품들의 집합체로만 존재한다. 인터넷은 하나의 네트워크이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식별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다. 자아를 '묶음'으로 보는 사고가 기묘하게 생각된다면, 모든 다른 실체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묶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탓이리라. 그런 이치만 이해한다면 묶음이론이 마냥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포착하는 일의 구조적 어려움

내가 앞에서 너무 급하게 비약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본다. 내 생각에 심리적 지속성이 개인 정체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사실은 대다수가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묶음이라는 결론이 너무 갑작스러운가? 흠이 자신의 내면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교묘한 속임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여러분 자신^{yourself}을 만나지 못했을 테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툴립의 노란 빛깔, 커피 향기, 기필코 기차표를 예매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관찰하듯 자아를 관찰할 수는 없다. 자아는 그런 생각과 지각을 보유한 무엇이 지, 그 자체로 하나의 지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분은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생각과 지각을 보유한 자아의 존재를 의식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의식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달리 말해 길버트 라일이 언급한 ‘나의 포착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단지,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되는 일이 불가능한 데서 비롯되는 결과다. ‘내’가 자신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사냥꾼이 동시에 자신의 사냥감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기 얼굴을 먹으려 한다거나 (거울 없이) 자기 눈을 직접 들여다보려고 하는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now}’만큼이나 포착하기 힘들다. ‘지금’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은 이미 지나가버리고 만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관찰하고 온전하게 의식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행동 자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경험의 속성을 바꿔버린다.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다. 자아를 묶음으로 보려는 사람은 철학자 폴 리코르^{Paul Ricoeur}가 언급한 “완강한 인칭대명사” 문제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통합된 단일 존재를 지시하는 듯한 인칭대명사 ‘나’를 사용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다. 현대 철학자 콰심 카삼Quassim Cassam은 한발 더 나아간다. 카삼은 “어떤 사람, 즉 주체를 거론하지 않고는 ‘생각하는 나’라는 주제조차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며 “지속하는 물질적 실체로서, 그리고 물리적 대상 속의 물리적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만” 자아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카삼의 주장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주장과 통한다. 칸트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경험하는 주체 내부에 세계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근본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이를 “통각의 선형적 통일transzendente Einheit der Apperzeption”이라고 부른다. 설명하자면 세상에 대한 개개의 경험을 보다 넓게 통합된 전체의 일부로 지각하기 위해 필요한 내적 경험의 통일성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고에 반드시 동반되며, 다양한 경험들이 의식 안에서 일관성 있는 전체로 파악되게끔 하는, ‘생각하는 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카삼이나 칸트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경험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수인가’를 물어보려는 시도는, 거기서 나온 결론과는 분명한 모순을 보이는 현실 증거들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로, 코타드 증후군이나 일시적 간질성 기억상실을 앓는 사람들은 카삼이 세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식 경험에 필수라고 주장하는, 책상머리에서 나온 조건들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안티 레본수오Antti Revonsuo의 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꿈속에 자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이것이 옳다면, 이것은 내가 없는 통각의 통일은 있을 수 없

다는 칸트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증이다. 또한 우리는 꿈에서 때로 육체가 없는데, 이는 의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신을 지속적인 물질적 실체로 의식해야 한다는 카삼의 주장에 배치된다.

자아를 통합된 단일체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라는 칸트나 카삼 등의 주장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지, 우리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육체를 가진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 말대로) 필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항상 육체를 가진 실체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통일성을 갖는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특정 순간에,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생각해야만 하는 것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 칸트는 이미 이런 사실을 헤아리고 있었다. “다른 시간대의 자아를 동일한 자아로 인식하는 것은 나의 사유와 사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조건일 뿐, 그것이 나라는 주체의 수적 동일성(numerical identity) 자체를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게일런 스트로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 경험(self-experience)은 하나의 경험 형태로 분명히 존재한다. 자아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러므로 경험의 통일성이 (그런 경험을 하는) 통합된 실체가 있다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 현실 증거들은 오히려 그런 건 없다고 말한다.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지는 뇌 안의 중앙통제소가 없고, 의식의 소재지인 비물질적 영혼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당히 ‘나’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통일성 덕분이며, 이런 통일성은 자아의 속임수의 결과물이다. ‘자아의 속임수’는, 뇌에 의해 만들어진 복잡한

심리적 사건 덩어리가 단일한 자아를 창조해내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다. ‘놀라운’ 이유는 단일한 자아의 근거가 되는 단일한 무엇의 존재도 없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아의 핵심에 진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핵심 자체가 없다. 사상가들은 오랫동안 자아 경험의 통일성을 설명하려면 통합된 핵심 자아를 당연한 것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사실, 통일성은 원인이 아니라 놀라우리만치 분열되어 있는 묶음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끝) 

- 이 글은 『에고 트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줄리안 바지니**(Julian Baggini) |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 칼럼니스트이다. 런던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부터 철학 계간지 『철학자의 잡지』(Philosopher's Magazine)의 공동 발행인이자 책임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그는 BBC 라디오의 〈우리 시대〉(In Our Time)라는 인문학 토론 프로그램의 단골 패널이며 『가디언』 『인디펜던트』 『옵저버』 등 여러 잡지의 철학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철학자로서 전 방위에 걸쳐 관심을 보이는 그는, 낙태 문제부터 테러와의 전쟁, 실존주의까지 관심 있는 주제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꺼이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든다. 적극적이고 예리한 분석력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글쓰기는 그에게 ‘대중적인 철학자’의 이미지를 선사했다. 이런 성향은 그의 대표적인 『유쾌한 딜레마 여행』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철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실험 100가지를 담은 책으로, 영생의 묘약, 클론 소동, 쌍둥이 지구 등 그의 상상 속에서 태어난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철학적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한다. 그 외 저서로는 『행간의 철학』(Making Sense: Philosophy Behind the Headlines), 『무신론』(Athe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가? Do You Think What You Think You Think?』(공저) 등이 있다.

역자 | **강혜정**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와 신문사를 거쳐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해적국가』, 『몸짓의 심리학』,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에게』,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자칼의 날』, 『에비에이터 하워드 휴즈』, 『텅 빈 레인코트』, 『비이성의 시대』, 『심리학에서 육아의 답을 찾다』, 『데이비드 봄의 창조적 대화론』,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이탈리안 조이』 등이 있다.

에고 트릭

저자 브루스 로젠블룸, 프레드 커트너 | 역자 전대호 | 출판사 지양사 | 정가 22,000원



당신이 믿는 당신은 가짜다!

내 안에 숨겨진 '나'를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존재 여행

'자아'라는 다소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펼쳐낸 책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논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꼭 짜인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육체와 자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는 성전환자 가나미트라와 드루실라 말랜드, 환산 테리를 당해 얼굴에 끔찍한 손상을 입은 모델 케이티 파이퍼, 루게릭병을 앓는 역사학자 토니 주트의 사례를 끌어온다. 또 기억과 자아에 관해서는 뇌수술로 기억능력을 상실한 H. M. 과 치매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끌어와 이야기를 전개한다.

자아의 다중성을 말할 때는, 해리성정체장애를 앓는 로버트 옥스남과 매춘부·작가·연구원으로 삼중생활을 하는 브룩 매그난티의 이야기를 끌어오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괴하다고까지 느껴지는 철학자들의 사고실험도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자아'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는 바지니의 솜씨는 차라리 예술에 가깝다. 그뿐 아니다. 인지과학계의 세계적 석학 대니얼 데닛, 영국 신학계의 가장 명망 있는 인사인 리처드 스윈번, 국내에도 잘 알려진 뇌과학자 수전 그린 드, 스탠퍼드 감옥실험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뱀』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심리학자 수전 블랙모어, 개인 정체성의 전문가인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교수 테릭 파핏, 트랜스휴머니즘의 대표주자인 과학철학자 닉 보스트롬, 무신론 불교철학자로 명성 높은 스티븐 배철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석학들과의 대화 장면을 엿보는 것은 다양한 사례 분석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